

다산포럼

‘융합’과 ‘무전공’ 사이에서 갈팡질팡



김재민  
철학자·경희대 교수

교육부에서 대학이 ‘무전공’ 선발을 할 때 인센티브 20% 포인트 이상을 지원해준다는 소식과 맞물려 대학이 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다. 융합 인제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기초학문이 고사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과거 광역모집의 실패 사례를 거론하면서 또 한 번의 실패를 예상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무전공 선발은 환영할 일이다. 나는 대학 교육이 ‘확장된 문해력’을 기르는 ‘확장된 인문학’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융합 협업의 전제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확장된 문해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문·이과 구별은 물론 단과대학과 학과를 없애는 ‘전면 무전공 교육’이 이상적이다.

의약계열과 사범계열을 예외로 두는 정책도 모순이다. 이들은 확장된 문해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말

인가! 20대 초반까지는 모두에게 예의 없이 공동인 핵심 역량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과거의 실패 사례로 거론되는 세 가지 사례는 참고하기에 적절치 않다. 출발부터 명백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 1. 과거 광역모집의 실패는 완전 무전공 선발 및 공통 핵심 역량 교육과 무관하다. 2·3학년제 전공에 진입할 터인데, 진입 시기만 조금 늦추면서 고3을 대1로 지연한 점수에 불과하다. 애초에 학과를 유지하겠다는 전제로 출발했으니, 실패는 당연하다. 현재 추진되는 방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법하다.

사례 2. 자유전공학부(대학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졸업할 학과를 정해서 그 학과 수업을 듣게 될 방식이므로, 오래 유지되어 온 학과별 모집과 차별점이 없다. 공통 과목 몇 개 더 배우는 정도로 생색내면 안 된다.

사례 3. 카이스트(및 몇몇 과학기술원)와 포스텍을 예로 들기도 한다. 이들은 이공계 단과대학이니, 출발에서 사실상 반쪽 아닌가? 자연과학과 공학 계열 중 학과를 선택하는 조합이므로 종합대학에서 참고할 만한 본보기가 될 수 없다. 반쪽 교육을 받은 반쪽 인재를 반쪽 영역에서 고르게 하는 식이니, 사실상 보면 교육 모델로는 최악이다.

무전공으로 ‘선발’만 하면 뭐하나? 인기학과는 교수 공급에 허덕이고 비인기학과는 폐교 위협에 시달릴 터이니. 만일 시류가 바뀌면, 대학은 또 다시 안정을 잃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다시 구조조정 어찌구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교수급 인제가 딱딱 어디서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교육의 근본 수순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나는 ‘전면 무전공 교육’ 즉 공통 핵심 역량(확장된 문해력)을 키우는 ‘확장된 인문학’ 교육이 아니라면 모든 시도가 실패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분적 도입은 혼란과 논란만 가중할 뿐이다. ‘무전공 선발’이라는 최악의 절충안은 결국 ‘교양과 전공의 구별’이라는 인습과 ‘취약 학과의 불안’에서 타협한 결과다. 공통 핵심 역량을 키운 후, 대학원에서 전문 역량을 익히게 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다.

융합 인재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융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곧 융합 인재다.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더불어 다른 전문가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어야 융합 실현이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무전공 선발 후 학과 진입이라는 정책 방향은 융합 작업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한다.

융합이 성공하기 위한 교육적 토대를 다지는 일이 한 개인을 융합 인재로 육성하려는 허망한 시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청춘 특·특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



양미영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3년

만약 국가 위기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이오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무슨 대답을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았나 말로 대답을 알버무렸던 것 같다.

이 질문이 지난 여름에 개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란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영화는 대지진으로 인해 온 세상이 폐허가 된 가운데 단 하나의 건물, 황궁아파트만이 무너지지 않은 채 우뚝 버티고 있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곳에는 각자 다양한 사연을 지닌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있는데 영화를 본 관객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은 바로 ‘명화’다.

황궁아파트의 주민인 ‘명화’는 재난 가운데서도 옆 아파트의 생존자 모자를 자신의 집에 들고 방까지 내줄뿐만 아니라 보급품 하나하나가 귀한 시절에 남편 ‘민성’이 어쩔사리 구해온 황도 통조림을 모자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이후 아파트에서는 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모조리 내

쫓아 명화가 집에 데리고 있던 모자도 예의 없이 쫓겨 나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인 ‘도균’이 자신의 집에 머물렀던 외부인 남자아이를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명화는 자신의安危 따위는 따지지 않고 이들을 몰래 돕기도 한다.

영화가 진행돼 갈수록 명랑 직전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생존으로만 귀결해간다.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을 내쫓고 폭력적인 언갓수단을 써가며 인간성을 점차 잃어가는 것이 당연시되지만 명화는 끝까지 자신이 지닌 인간성, ‘선’을 지켜나간다.

영화를 보면서 답답하기보다 어디에서든 이런 상황이 펼쳐져도 누군가는 명화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기에 마냥 미워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영화를 본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기 달랐다.

애매하게 비겁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도 끝끝내 모 든걸 포기하고 합리화하지 않는 태도는 보통 사람이 감정을 투사하는 평범함이나 다름없으며, ‘해결책도 없으면서 착한 척은 명화 혼자 다 한다’느니,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착한 일은 혼자 하는 비겁한 인물’이라고 단정지었다.

명화를 보며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에 나온 ‘웨이먼드’가 생각났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갈등을 황궁아파트 주민들과 정반대로 행동한다.

영화 속 현실과 메타프픽을 한 상황 속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그는 항상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 그럴

다고 문제에 수동적이지도 않는 것은 영화 내내 조용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감정 간의 균형을 계속해서 맞춰가며 문제를 해결한다.

즉, 웨이먼드는 자신이 원하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지만 ‘다정함’을 통해 이뤄나간다. 인내심, 소통, 그리고 공감을 통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정함’을 실현해 나가며 모든 갈등을 해결해 나감만 아니라 아내인 ‘에블린’에게 다친 어려움까지도 ‘웨이먼드’ 식의 방법으로 이겨낸다.

점점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SNS가 하나의 여가도 바뀐 현재,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반면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아주 잠깐 비춰진 순간들만 살짝 훑어보고 비판하고 내 의견과 맞지 않으면 비난하기 일쑤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것은 많은 노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인 판단과 비판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강연에서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쉬운 길은 절망’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포기하는 것은 언제나 쉽고 가장 어려운 것이 희망이다. 명화가 지켜낸 ‘선’처럼, 웨이먼드가 노력해온 ‘다정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제가 아는 거라고는 우리 모두 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다정하게 대해 주세요. 특히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때는요.”(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대사)

社說

민주당 ‘개혁 공천’, 컷오프가 시험대다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와 지역 실사를 마치고 31일부터 2월 5일까지 후보자 면접에 들어간다. 광주·전남지역은 2월 2일 지역구별로 면접을 실시하고 2월 5일 컷오프(공천 배제) 결과를 발표한다.

공천의 1차 관문인 컷오프는 ‘공천=당선’이라 평가받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컷오프에서 가장 큰 비중(40%)을 차지하는 후보 적합도 조사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혁 공천을 위해 컷오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은 국민참여를 통한 시스템 공천을 공언해 왔는데 컷오프가 공정과 개혁 공천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공인처럼 개혁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천 논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비례계 등이 우려하는 친명(친 이재명)계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

이나 어드밴티지가 주어진다면 사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그동안 정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2인 경선이나 3인 경선 선거구로 지정하는 등 종종 컷오프를 통해 특정 후보를 위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시스템 공천을 한다면 선거구도 지도부가 틀을 미세하게 조정해 특정 후보 밀어주기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6%, 민주당 34%로 비슷하고 무당층이 24%에 달한다. 이는 민주당이 개혁 공천에 실패할 경우 제1당을 장담하기 어렵고 무당층 표심을 노리고 컷오프 탈락자들의 대거 탈당과 신당 행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더구나 낫발인 광주·전남에선 컷오프가 사실상 공천을 결정짓는 만큼 어느때보다도 시스템 공천을 지켜 공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한 전략 선거구인 광주 서구을이 시스템 공천의 성공 여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KIA 구단 잇단 금품 비위, 팬들이 부끄럽다

KIA타이거즈 프로야구단 전·현직 단장과 감독이 금품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어제 장정석 전 KIA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감독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수재는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음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전 단장과 현직 감독이 나란히 구속 감림길에 섬으로써 KIA 구단은 장단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게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3월 포수 박동원(LG 트윈스)과 자유계약선수(FA) 협상 때 계약을 조율하다가 장 전 단장이 뒷돈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박동원의 신고 받고 그 해 제2회 검찰특수조사팀을 투입한 프로야구선수협회가 KIA 구단에 장 전 단장의 비위 사실을 알린 게 결정타였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30일 장 전 단장을 압수수색해 박동원 뒷돈 요구 혐의와 다른 혐의도 포착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감

독의 비위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단장과 김 감독에게 각각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KIA 구단은 해태타이거즈 시절까지 통틀어 11차례나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명문이다. 선수 선발과 기용, 트레이드를 총괄하는 단장과 감독의 금품 비위는 구단의 명성에 먹칠한 것은 물론이고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KIA 구단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팀을 재창단 한다는 각오로 자정 노력과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구단 내부에 비리의 싹이 자랄 소지는 없는지 철저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책과 자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올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선수단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환부를 도려내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KIA 구단은 채신의 노력이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출발을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3선, 4선 의원도 알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도 알고 있고, 전직 장관도 알고 있는데 ‘여섯 글자’를 지금 말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김경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SBS 김태현의 정치쇼) 발언 내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중 처음으로 ‘김건희 리스크’라는 여섯 글자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대통령실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묻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모두 알고 있다. 말

김건희 리스크

아담과 언론, 여론조사 등에서 많이 언급된 것과 달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섯 글자’(김건희 리스크)는 ‘금기어’였다. 감히 입에 올리는 것도 죄송스러운지, 국민의힘 배대총의원은 SNS(페이스북)에 “000특별법, 법 이름부터 악법”이라고 했고 ‘도인지 특강’이라며 이름 지우기도 시도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도인지 특별법’이라고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김건희 특별법’을 “개인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대 페르시아 황제들은 패전 소식을 전하러 온 자신의 군대 전령의 목을 베었다고 전해진다. 나쁜 소식이 듣기 싫다고 ‘메신저’까지 죽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가 ‘페르시아 메신저 증후군’(Persian Messenger Syndrome)이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계속 죽는데 누가 전령타에서 황제가 듣기 싫어하는 패전 소식을 전하러 뛰어가겠다. 결국, 나중에 누구도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려고 한다. 엑스포 유치전에서 ‘119대 29’라는 참담한 결과를 받기 전까지

“49대 51”까지 추격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황당한 궤변으로 방어막을 치는 여당과 정부 행태를 보면 괜히 드는 생각은 아닌 듯 싶다.

대통령 새해 기자회견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불변한 질문들을 듣기 싫어서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불변한 질문을 틀어막는다고 민심이 수그러들진 않는다.

/김지용 정치부 부장 dok2000@

기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클래식, 네가 그렇다



김승일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언젠가부터 눈만 감으면 희미한 옛 사진 하나가 떠오른다. 도무지 뭐가 찍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거무스레한 오래된 사진이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흐린 사진에 뭐가 찍혀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과 호기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사진은 눈앞에 계속 어른거린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사진에 옛날 전기 없던 시절의 등잔불이 보이기 시작했다. 등잔불의 노란 점 주위로는 무언가 그림자도 보인다. 얼마 전부터는 그 사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서너 살 어린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제일 또렷하게 들렸고, 그 주변에서 깔깔거리는 또 다른 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렇게 그 희미했던 옛 사진은 내 기억과 어우러지며 실체를 찾아갔다. 언뜻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미안함보다는 잊고 지낸 세월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간절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처럼 어렵고 막연하지만 했던 클래식도 마찬가지

가 아닐까. 클래식도 마치 희미한 옛 사진에서처럼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계속 찾아 나서는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궁금증을 풀려 간절히 갈망하면 분명 어떤 모습으로든 나에게 다가온다.

간절한 호기심과 상상력, 그리고 찾아 나서는 갈망의 실천은 어렵게만 보이는 클래식의 세계로 접어드는 첫 길목이다.

요즘은 휴대전화로 통해 클릭 한번이면 라흐마니노프나 말러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이 음악은 마치 초점이 잘 맞춰진 선명한 사진처럼 우리 귀속을 파고 든다. 언제 어디서나, 간절함 없이도 너무나 쉽게 클릭 한번으로 음악을 만날 수 있는 편리함은 오히려 호기심을 지워버렸다.

그러니 오래된 사진을 접할 때 같은 궁금함도, 간절함도 당연히 필요 없어졌고, 간절함이 없으니 찾아 나서지도 않는다. 초점이 안 맞은, 희미한 옛 사진에서처럼 뭔가 아쉬움으로 두고 두고 마음에 남아 있다. 어스프레 기억에서 떠올리며 새삼스럽게 위로받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CD로 음악을 들던 시절, 누군가는 LP를 뒤어 테레 이블에 올리고 스위치를 눌러 회전판이 속도를 내면 열리는 손으로 바늘을 올려놓는 채 가슴 졸이며 음악을 기다리던 그 맛이 없게 아쉽다고 했다. 휴대전화에서 는 더욱 더 그런 맛을 기대하기 어렵다. 휴대전화에서 음악은 울려도 음악을 향한 각자의 열망과 갈망까지 포

용하지는 못한다.

적어도 두 세 달 전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로얄석을 예매해 두고 연주회날을 기다리는 그 맛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좋은 옷 차려입고 좌석에 앉아 공연 시작 전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특별한 공간이 주는 적막감을 느껴본다. 좌석이 다 차고 드디어 조명이 바뀌면서 온 시선이 무대에 집중될 때, 연주자가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공방거린다. 인사하는 몸짓은 또 얼마나 멋스러우지 모른다. 포디엄에 오른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자 관아 연주자들은 악기를 치켜들고 현악 주자들은 활을 일제히 높이 올린 채 정지에서 정지한다. 그 찰나의 순간은 초점이 잘 맞춰진 사진이나 휴대전화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설렘을 선사한다.

이렇게 드넓은 공간에서 쫘팍없이 함께 견디며 박수치고, 앙코르를 외치며 클래식을 낚 것으로 만나는 이 시간은 클래식 초심자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일문 코스 중 하나다. 연주회가 끝나고 천천히 공연장을 나와 걷다 만나는 마음 속 잔상들은 초점 흐린 오래된 사진에서 느꼈던 간절함, 애절함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를 따라 해본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클래식이 그렇다”

클래식은 살아 있는 날것으로 즐겨야 더욱 예쁘고 더욱 사랑스럽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1952년 4월 20일 創社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편집총괄국장 權宰豪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